

언택트 시대 고령층 음식 주문도 '버겁다'

리포 광주 북구 무인 점포시설 가보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키오스크' 이용 보편화 은행도 디지털 라운지 '전환' ...사회 고립 현상 심화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포용성' 확대 시급

"이건 또 어떻게 사용하죠? 나 같은 늙은이들은 식당 이용은커녕 앞으로는 은행도 이용할 수 없겠네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사람과 접촉 없이 주문이나 결제 가능한 '키오스크'가 보편화 되면서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한 고령층들이 무인 점포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에 발생하는 정보격차인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계층 간 갈등과 단절 등이 심화되고 있어 디지털 활용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역량교육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무인형 점포(디지털 라운지). 이날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이곳을 찾은 한 노인은 창구 직원이 있는 은행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하는 모습이었다.

은행 업무를 화상통화로 할 수 있다

는 상주 직원의 설명을 듣고 상담실로 들어섰지만, 지문인식과 번호기 입력 등에 어려움을 겪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이용하기엔 버거워 보였다.

또다른 노인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디지털 라운지를 찾았지만, 은행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직원이 있는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무인 은행 점포를 방문한 주민 윤모씨(68)는 "직원이 도와줘서 이번엔 잘 끝났지만, 다음번에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종업원이 없는 시설이 늘어날 텐데 교육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간 두암동 인근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 보였다.

손주의 간식을 구매하러 온 김모씨(73)는 "상주하는 직원 없이 주문 결제 테이블에 QR코드 인식 태블릿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당황했다"며 "다행히 주변인의 도움으



5일 오전 광주 북구 신한은행 디지털라운지에서 한 어르신(왼쪽)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무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김생훈 기자

로 겨우 상품을 선택한 후 셀프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홀로 키오스크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벅하다"고 말했다.

10여분 뒤 가게를 찾은 한 노인도 계산에 어려움을 겪어 고른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무인 카페를 찾은 노인들 또한 키오스크 주문 결제에 당혹스러워했다.

이처럼 무인 판매시설인 '키오스크'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정

보 소외계층인 고령층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이용에 있어 편리성 보다는 일상생활의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오면서 노인들의 삶이 더욱 고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기기의 역기능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청년 세대의 주도하에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2~7	순천	0~9	광양	1~10
나주	-5~6	목포	-1~5	여수	2~9

일출 07:41 일몰 17:35
월출 10:36 월몰 21:31

장성	-4~6	흑산도	4~7
담양	-5~7	구례	-3~8
화순	-4~6	곡성	-5~7
영광	-4~5	완도	0~7
함평	-4~6	강진	-3~7
무안	-3~5	장흥	-3~7
영암	-4~6	해남	-4~5
진도	0~6	고흥	-2~8
신안	-1~6	보성	-3~6

목포	만조 04:24 17:14	여수	만조 11:56 --:--
	간조 09:40 22:22		간조 05:13 18:0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업무 휴기 협박 50대 항소심도 실행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무를 휴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2시 38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전통마사지 업소에서 업무를 휴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완도 숙박업소 불...화재원인 조사

전남지역의 한 숙박업소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 등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23분께 완도군 완도읍 한 숙박업소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대원 33명을 투입, 화재 발생 10여분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숙박업소 외벽 3㎡와 에어컨 실외기가 불에 탔고, 1m 전선 5줄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환준 기자

'무등산~영산강' 친환경 산책로 열린다 '불법 수익계약' 기초의원 불구속 기소

북구, '시민의 숲음길' 조성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한 번에 걸어갈 수 있는 '시민의 숲음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부터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맞춰 무등산 자락인 군왕봉에서부터 삼각산, 일곡동 한새봉, 매곡산, 운암산 등을 거쳐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산책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단기계획으로 오는 2023년까지 삼각산 정상에서 일곡동 한새봉을 거쳐 일동중학교까지 약 5.5km 구간에 도심 속

트레킹이 가능한 등산숲길을 조성한다.

또 한새봉과 삼각산 사이의 도로로 단절된 구간은 구름다리로 연결하고 두 곳에 야생동물 이동 통로와 산책로를 만들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중기적으로는 오는 2024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와 협의 후 110억 원을 들여 일곡동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을 거쳐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총 3개의 보행육교를 건설한다. /최환준 기자

먼저 운암산 인근 주민들이 영산강 수변공원과 자전거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고을대로 위에 영산강 대상공원과 운암산공원을 연결하는 98m 길이의 육교가 설치된다.

중의공원과 국립광주박물관 사이에도 67m 길이의 육교가 연결돼 운암동 주민들의 공원 산책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곡산과 일곡동 한새봉을 잇는 53m 길이의 육교는 본촌산단 한국전력공사 재무자재센터입구 인근 양일로 위로 조성되며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이 가능해진다. /최환준 기자

'불법 수익계약' 기초의원 불구속 기소

구청과 10여 차례 걸쳐 9,000만원 파낸 혐의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가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업체가 구청 수익계약을 파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기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인을 알리지 않고 광주 북구청과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익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

상 검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는 다른 대표자를 내세운 업체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 개보수나 공동주택 정비사업 공사 등을 따냈다.

기 의원은 본인 몫으로 배정된 한 해 6,000만원의 일명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파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과 북구는 포괄사업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환준 기자

DASCO
Development, Advanced Solution Co., Ltd.
www.dasco.kr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옥식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 다스코 | 쓸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스틸코(철근유통·가공)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